

AM-OLED, 세계시장 급성장 지속

2012년 상반기 31억달러로 2011년 수준 ... 모바일기기 수요 증가로

휴대전화,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(AM-OLED)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.

AM-OLED는 빛을 비춰주는 백라이트와 색을 걸러내는 칼라필터가 없는 단순한 구조로 초박형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며 자연색에 가까운 풍부한 색 재현율과 폭넓은 명암비로 현존하는 최고 화질의 디스플레이로 꼽히고 있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12년 1/4분기 세계 AM-OLED 매출은 14억8807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% 증가했다.

2011년 상반기 전체 매출 13억3215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3개월만에 2011년 6개월 매출을 넘어선 것이다.

AM-OLED 시장은 2011년 1/4분기에도 5억7379만달러를 기록해 2010년 상반기 매출 3억6955만달러를 55% 이상 초과 달성했다.

2012년 2/4분기 매출은 16억1804만달러로 상반기 총매출이 31억611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2011년 전체 매출 35억2212만달러의 88%에 해당하는 것이다.

AM-OLED는 2007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세계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한 이후 매년 연평균 100%를 훌쩍 뛰어넘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.

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해 모토로라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 <드로이드 레이저>와 노키아의 <루미아 900> 등에 탑재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력 디스플레이로 부상하고 있다.

AM-OLED의 영역이 가속화하면서 스마트폰 생산기업들도 잇따라 AM-OLED 탑재 폰을 선보이고 있다.

2012년 2월27일부터 3월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(MWC) 2012에서 스마트폰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 화웨이는 4.3인치 AM-OLED를 탑재한 초슬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어센드P 시리즈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.

타이완의 HTC도 4.3인치 AM-OLED를 채택한 원(One)S를 공개했다.

또 세계 최초로 5인치 AM-OLED를 탑재한 게임기인 소니 PS 비타(VITA)는 2011년 12월 출시 후 2개월만에 세계 판매량이 120만대 돌파했고, 3월 세계 최초로 7.7인치 대형 AM-OLED를 탑재한 갤럭시탭 7.7 LTE가 출시되는 등 스마트폰 이외에 게임기,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도 AM-OLED 탑재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.

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AM-OLED 시장에서 2007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90%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, 2012년 1/4분기에도 판매량 3140만개, 매출 14억3235만달러, 점유율 97%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.

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2011년 5월 말 세계 처음으로 5.5세대 AM-OLED 라인을 본격 가동해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2>